

‘그알’ PD, 금지구역 빗장을 풀다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새 파일럿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 공개…1화는 교도소편

SBS TV 대표 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해 온 이동원 PD가 새 파일럿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선보인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시사·교양 본부가 제작했지만, 예능이라고 해도 무방한 프로그램이다. ‘무한도전’과 ‘라디오스타’를 만든 김태희 작가가 참여했고 김중국, 코미디언 양세형, 배우 이이경이 진행을 맡았다.

이 PD는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면서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건을 피해쳐서 도움을 주거나 형사 절차를 밟게 했다”며 “새 프로그램을 한다면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 PD는 “금지구역을 가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일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고충을 듣고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극한의 무거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와서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예능을 했던 작가님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화 서울남부교도소편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색색의 자막과 장난기 가득한 MC들의



모습이 담겼다. 김중국, 양세형은 실제 수감자처럼 수의를 입고 입소 절차를 밟았다. 렌즈를 끼거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본적인 신체검사부터 목속에 숨긴 물건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항문 검사까지 받는 과정이 현장감 있게 담겼다.

이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오래 하면서 교도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공간이라 충격적이고 신기했다”며 “그곳의 교정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묵묵히 맡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PD는 “교정 공무원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왜곡된 이미지로 상처받기도 한다”며 “(이들의 노고를) 알리려면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업무 절차가 이뤄지는지 등을 이해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내용 중 특정 직군 근무자를 MC들이 인터뷰하는 형식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다른 예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PD는 “누군가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특정이 아닌 한 기관, 그 시설을 통째로 섭외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며 “MC들은 출입증을 발급받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 속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총 3부작으로 기획됐다. 2화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며, 3화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마을 이름 유래’ 아시나요

서구문화원 책 발간…조강봉 교수, 타지역 동일 지명 비교 연구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유래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마을에는 기원을 알 수 있는 고유 유래와 스토리가 있다.

최근 서구지역 마을 유래, 어원 등을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과 조강봉 교수는 마을의 이름의 유래와 어원을 정리한 ‘광주 서구, 마을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사진〉을 펴냈다.

책은 오래전부터 지명 유래를 연구해온 조강봉 교수가 지난 1년여 동안 조사했고 전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지명을 비교 연구해 완성했다.

책에는 서구 관내 양동, 농성동, 광천동, 화정동, 상무동, 유덕동, 서창동, 금호동, 풍암동, 동천동의 유래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내방동, 쌍촌동, 치평동, 유촌동, 덕흥동, 마북동, 세하동, 벽진동, 용두동, 매월동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풍수설이나 한자 뜻풀이에 의존한 기존의 해독방법과 달리 동명(동명)과 마을명의 유래와 어원을 연구해 그 유래를 정리했다.



조 교수는 “지명의 유래를 알아보면 우리는 그 속에 숨은 많은 역사를 알 수 있다”면서 “이 책을 집금다리 삼아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문화원은 서구 지역과 관련된 인물, 마을, 역사, 유적, 민속, 의병활동, 근대생활 등 서구의 초상을 복원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영화비평지 ‘씬1980’ 12호 발간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씬1980’ 12호〈사진〉을 발행했다. 1년에 4회 발행되는 계간지 ‘씬1980’은 2019년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권의 비평지를 발간했다.

12호의 표지는 11호에 이어 권승찬 작가의 작품으로 꾸며지며 씬2022, 시네마틱뷰, 크리틱, 시네스케이프, 픽엔톡, 트랜스크리틱, 클로즈업, 도큐멘타 등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씬1980’ 12호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의 ‘영화비평지 발간 프로젝트’ 청소년 영화 비평이 실렸다. 또 사회 기업 ‘잇다’의 대표이자 광주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순화 대표와 나는 인터뷰 내용도 만나볼 수 있다. 대안적 영화 창·제작 및 상영문화 ‘커뮤니티시네마’에 대한 글도 게재돼 읽을거리



를 더했다. ‘픽엔톡’ 코너에서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 대한 관객 5인의 감상평과 ‘씬1980’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22년 베스트 영화 5가 담겼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애인 오케스트라 희망찬 새해 하모니

내일 우리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아시아아트 심포니 등과 협연 관현악 합주도…공연 전석 무료

2023년 새해, 장애인들의 희망찬 연주와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장애인 17명이 함께하는 우리오케스트라의 2023 신년음악회가 6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나의 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아시아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카이프릿지 재즈밴드, 라르브르 주니어 앙상블과 협연한다.

2009년 창단한 아시아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 등에 힘쓰고 있으며 스카이프릿지 밴드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강상수를 포함해 피아노, 알토색소폰, 베이스, 드럼이 한데 모인 팀이다. 2011년 창단한 ‘라르브르’ 주니어 앙상블 팀은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을 연주한다.

이들은 먼저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현악 중주를 연주하며 무대의 막을 열고 인순이의 ‘겨울의 꿈’을 올린다. 바이올리니스트 추진실이 손경민의 ‘청년의 기도’를, 플루티스트 박선영이 아일랜드 전통 음악 ‘버드나무 정원 아래서’를 연주하고 첼리스트 최필립이 이권희의 ‘사명’을 선보인다. 또 차진환과 이형석, 이민우 등이 ‘문리



우리 오케스트라 연습 장면.

비’를 연주하고 플루티스트 김민호와 박선영이 노사연의 ‘바람’을 펼친다.

참여단체가 함께하는 관현악 합주도 마련됐다. 차진환이 작사·작곡한 ‘우리 오케스트라 송’을 연주하고 강상수와 색소포니스트 이병하가 ‘마이 웨이’를 선사한다. 무대는 ‘위풍당당 행진곡’과 드라마 ‘하얀거탑’의 OST ‘비 로제트’로 막을 내린다.

우리오케스트라는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 장애인 17명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음악 감독에 김수연이 함께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매는 전화(062-670-7465) 혹은 당일 현장에서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미술시장 유통액 첫 1조원 돌파

지난해, 전년보다 37.2% 증가…경매 판매액은 감소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유통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와 화랑 매출액은 늘었지만 경매 판매액은 줄어들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1조377억원으로 2021년 조사 때 7563억원보다 37.2% 증가했다.

아트페어 매출액은 2021년 1889억원에서 지난해 3020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아트페어 방문자가 87만5000명으로 전년의 77만4천명보다 13.1%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프리즈 서울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도 2021년 314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022억원으로 59.8%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미술품 경매 횟수는 276건으로 전년의 254건보다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은 58.4%로 2021년 66.4%보다 감소했다. 경매사를 통한 판매액은 2335억원으로 2021년 3384억원보다 30.9% 줄어 들었다.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분기 785억원에서 2분기 665억원, 3분기 443억원, 4분기 440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문제부는 풀이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